

7. 식량작물 : 쌀, 콩, 옥수수, 고구마, 감자 농가 경영효율성 변동 추이

가. 쌀 농가 경영효율성 변동 추이

비용효율성 측면에서 총효율성은 소폭 증가하였는데, 이는 주로 기술효율성 증가의 효과이다. 경영효율성의 농가간 편차가 증가하는 가운데(변이계수 증가) 배분효율성의 편차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표 3-4-44> 쌀 비용효율성 변동 추이

구분	총효율성		배분효율성		기술효율성		순수기술효율성		규모효율성	
	평균	변이계수	평균	변이계수	평균	변이계수	평균	변이계수	평균	변이계수
2012	0.419	5.104	0.731	9.966	0.575	5.311	0.650	5.022	0.896	7.128
2013	0.433	5.729	0.731	10.012	0.594	5.973	0.670	5.430	0.899	7.619
2014	0.466	5.742	0.732	10.211	0.640	5.795	0.710	5.704	0.909	8.433
2015	0.508	5.445	0.737	10.187	0.691	5.705	0.754	5.795	0.921	10.214
평균	0.457	5.505	0.733	10.094	0.625	5.696	0.696	5.488	0.906	8.348
연평균증가율	6.7%	2.4%	0.3%	0.7%	6.4%	2.6%	5.1%	4.9%	0.9%	12.9%

농가 규모수익 변동 추이를 보면 규모 확대가 필요한 규모수익증가 상태의 농가 비중이 가장 높은 가운데 규모수익감소 농가의 비중도 약 40% 수준으로 높다.

<표 3-4-45> 쌀 농가 연도별 규모수익 변동 추이

구분	규모수익불변		규모수익감소		규모수익증가		합계
	농가수	비중(%)	농가수	비중(%)	농가수	비중(%)	
2012	75	5.3	570	40.5	764	54.2	1,409
2013	78	6.3	483	39.1	673	54.5	1,234
2014	66	5.5	491	40.6	651	53.9	1,208
2015	61	5.0	500	41.0	658	54.0	1,219
평균	280	5.5	2,044	40.3	2,746	54.1	5,070

비용효율성 측면의 총효율성이 '1' 인 효율적 농가의 특성과 전체 농가의 평균 값을 비교한 결과는 <표 3-4-46>과 같다. 효율적 농가는 농가수입대비 공적보조금 비율이 낮고, 생산비에서 차지하는 대농구비비율이 높으며 재배면적이 2.5배나 더 넓었으며, 임차지 비율과 고용노동 비율도 높았다. 효율적 농가의 주요 경영특성은 비효율적 농가의 경영효율성 개선의 벤치마크로 활용할 수 있다.

<표 3-4-46> 효율적 농가 특성

구분	전체 평균	효율적 농가(비용 총효율성 = 1)
농가자산(천원)	416,259	417,481
유동자산/농가자산(%)	22.516	22.520
농가부채/농가자산(%)	7.959	6.403
농외수입/농가수입(%)	24.974	22.489
공적보조금/농가수입(%)	20.371	14.895